

<2021년 8월 25일 수요일말씀>

제 때 해야 성공한다

본 문 [시대 성경]

제 때 하면 성공한다
의식 말고 담대히 행해라

[에스겔 37장 7~10절]

또 수요일 말씀, 금주 말씀을 주일말씀 이어서 듣게 됐어요. 화요일도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초근초근 해줬어요.

말씀을 들으므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왔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핵만 읽었지만, 쪽 37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끊어져서 좌절된 상태를 보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한 얘기죠.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하다.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마른 뼈들에게 외쳐보자. 외치니까 살아났어요. 뼈가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까지 완전히 다시 덮여져서 사람이 되어 살아났어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서 행하더라.

꿈에서 이런 영계에서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말한 것을 전해줘라. 한 번 영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육으로 가서 행하라고 해서 행했죠. 행했더니만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갖고 살아나서 영차영차하고 에스겔 시대 때 부활의 시대를 맞았어요, 심적 부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실제 그 마른 뼈가 살아났어도 그건 영적인 상황이다. 육이 산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난 부활이 아니고 또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실체를 행해봤잖아요.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그들의 심령 상태, 생활 상태, 희망이 없는 자들, 좌절된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서 살았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수요일 말씀, 또 주일 말씀도 다 외치지 못한 말씀이 많죠. 한 번에 다 못 해요. 어디까지나 설교가 거기서부터 되면 차원 높여서 계속해 올라가요. 일요일에는 이만큼만, 또 화요일에는 이만큼 이어서, 또 수요일 더, 또 금요일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금주 같으면 제때 하면 성공한다. 주제 말씀이죠. 제때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께 성공의 비법을 물었더니 제때 하면 성공한다. 믿습니까? 모두 제때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제때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때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제때 하나님도 믿고 제때 성령의 감동을 주면 받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 비법을 금주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공 비법!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고 싶잖아.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제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때 해야 하는가 하니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잘 시켜주니까. 왜 제때 하면 성공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정한 때고, 만물의 때고, 사람의 때요, 시간의 때요, 이것이 다 맞은 거예요. 꼭짓점이에요. 딱 꼭짓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도 없이 그것이 다 맞았을 때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것저것 모든 여건, 조건, 자기가 기다리고 기도해서 조건 세우고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꼭짓점에 왔을 때, 10가지로 축소 시키면 10가지가 합해져서 꼭짓점에 왔을 때, 그때가 딱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딱 행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때 해야 성공한다. 이해가 됐죠?

금주 말씀. 시대 말씀도 이렇게 했죠. 시대 성경 말씀이에요. 시대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제때 하면 성공한다. 의식 말고 담대히 행하라.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의식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제때 하면 성공한다고 했으니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해야 해요. 저렇게 많이 골기퍼 앞에 많이 있는데 의식하면 안 들어가요. 의식하면 마음이 졸이고 뇌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생은 많이 겪게 했어요. 의식했으면 벌써 마음이 조리고 발이 제대로 안 대지고 뇌에 생각 그대로 하면 강도, 방향, 그리고 높이, 거리 조정이 정확하게 되거든. 뇌의 조정을 그대로 육신이 실천하면 들어가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 생활 할 때 의식하지 마라.

제때 하면 성공하는데 거기 의식하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1시간이면 어마어마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어코 행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포한 말씀을 잘 모르더라고.

인간의 수준이 별거지 밖에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알면 상대가 되어서 움직이거든. 행하는 자 쳐다보죠. 그러니까 시대 성경 말씀 제때 하면 성공한다. 하나 더 붙이면 의식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이번 주에 그런 것을 나는 겪었어요. 그러니까 돼서 이뤄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을 때 즉시 겨눠야지. 그때 겨눠야지 한 시간 후에 와요? 떠나버리는데.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예요. 즉시 한 것은 즉시 해결 됐어요. 즉시 해결할 것은 해결한다. 지혜받은 자요, 그리고 성령과 같이 즉시 행하는 거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급한데 밥 먹으려고 시원찮아. 미지근하고 나 같으면 뒤엎어버려요. 끈니적 끈니적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때 못 일어나면 붙여놔서 그래요. 끈끈이 붙었는데 붙으니까 붙잖아. 그것을 해결해야 안 잡힙니다.

자기 기회 때 못하면 사탄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해야할 기회에 못했을 때는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자기가 볼 잡았을 때가 기회인데 못하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말이야. 그때 못하면 사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겨야돼요. 이겨야 끌고 다니지 지면 끌려다녀요.

제때, 성공 비법을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제때 하면 성공한다. 이거 정말 못 깨닫더라고요. 중고등부, 대학부 지도자들 몇 명 와서 가르치는데 지도자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몰라. 그러면 즉시 중지시켜요. 하나님이 중지시켜. 다른 사람 불러서 하도록 하라. 왔을 때 해야지. 하루가 1분이라도 더 보려고 오는데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직접 못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보여주잖아. 나를 못 만날 때 내가 행한 걸 배우면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걸 배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10가지든, 20가지든, 30가지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전체를 내가 가르쳐버릴 거예요. 지도자들 대표가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섭리 전체가 하는 것과 똑같거든. 대표가 하면 한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조인할 때 대표가 가서 하면 같아요. 월드컵 때도 대표만 가면 끝나요. 대표가 갔으니 응원해야 해. 대표만 하면 전체가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줄게요. 성령길은 왜 닦았나? 이것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잃어버리면 마귀가 들어올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 길 따라서 내가 기도하러 간 길이라 닦았다. 하나님 자연성전 서쪽 길이 없다. 그래서 닦아야 한다. 한 성에 성문이 있어요. 딱 3개씩 있어요. 12개 문이 있어요. 여기는 3개씩 필요 없잖아. 상징적으로 하나만 내야지. 동쪽 하나, 서쪽 하나, 남쪽 하나, 북쪽 하나. 동쪽 길은 삼거리로 올라오는 길, 남쪽은 광주로 가고 전주로 가는 길, 또 하나 북쪽 길은 앞섬골 길, 서쪽 길 내서 서쪽 길을 나게 했어요. 서쪽 길은 부여, 공주. 서쪽 길을 냈어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있지.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의 걷는 길이 됐어요. 어떤 차가 다니기 보다는 정원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길이에요. 반듯하게 해야 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몇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전체 다 가르쳐줍니다. 코로나 기간에 뭐했나 하지만 그거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했는가 하니 어디로 내는가 했는데 전부 선생님과 성령과 같이 딱 했어요. 위치를 정해서 그 각도를 정확히 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한 길이 됐어요. 땅바닥을 돌아다니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딱 떨어있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디로 하라 딱 알려줬거든. 45도 각도로 쪽 내려. 왜 거북이처럼 천천히 내려. 바위 깨고 들어가야 해. 그래서 길 냈습니다. 그정도를 내고 다녀야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서 축지도 하고 순간이동도 하고. 축지길이고, 순간이동길이고. 너무 아름답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했고 북쪽으로 노을이 있어서 성령길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맞다고 했어요. 서쪽에 저녁 노을 있듯이 북쪽에는 없거든. 남쪽에도 없어요. 노을 길이에요. 성령길이에요. 처음에 말했듯이 기도하러 다녔던 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자연성전 서쪽 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쪽은 우리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북쪽길로 학교 다니고 일생동안 살았거든. 진산에서 앞섬골로 오르는 길은 우리 길이라 할 수 있어요. 동문은 하나님 길, 서문은 성령 길. 확실히 알아야 해. 자꾸 적어서 책 나오기 전에 확실히 외워야 해요. 책자로 박아 내야 해. 그냥 이걸 녹화해서 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운동장은 23만 명이 들어가서 물이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23만 명, 중장비로는 약 230개, 사람으로 계산하면 23만 명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요. 이런 것도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일을 했구나 알아야 해요. 나무도 사다가 심어놓고 계속 풀나는 거 베고 잔디밭 새로 심고 이런 일은 끊임없이 했고 생가터는 5번이나 바꿨어

요. 처음에는 옛날집 그래도 지어놓으려고 믿음산 기슭에 내가 옛날 집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큰 돌이나 하나 세워서 메시아 난 터 써놓으려 했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써놓지. 그랬는데 그래. 안 되겠다. 한 500년이 된 나무 심어서 기념수로 심자. 더 이상적인 것 없나 하다가 절경에다가 의자 앉아서 할까 했는데 기념관을 지은 거예요. 이런 것을 몇 가지를 알아야 해요. 꼭 여러분들 전체에게 강의 해줬어. 이것은 이제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겠지? 다 가르쳐줬으니까. 모르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똑똑히 가르쳐줬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선생님 상징술은 선생님 탄생 터에 심었어요. 선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상징 술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상징술인 줄 알아야 해요. 상징술에 대한 사연은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

나머지는 이것저것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또 배우면 돼요. 뿌리술, 뿌리왕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면 되니까.

제때 하면 성공한다. 때는 기회니라. 하나님 말씀.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전능하신 자로 때를 절대 지켜요. 천지만물 우주 만물 다 창조한 후로 1초도 늦게 한 것이 없다. 제때 정확히 바늘 꽃듯이 꽃았다. 왜 너희 못하냐. 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가 일체된 몸인데 때를 놓쳤다면 큰일납니다. 그 밑에 있는 지구 73억과 하늘나라 3천억이 손해가 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니까. 만약 때를 놓쳤다면 모든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본인이 놓치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따르는 자들은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안

가르치면 뭐하냐. 하느라고 그야말로 뼈가 녹았어. 그런데 그것도 못 가르치냐. 해야지. 꼭 하라고 했어요. 한 번에 혼내지 않아. 두 번, 세 번, 네 번 안 했을 때는 혼나. 조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빨리 가르쳐. 몇 명 깔보지 말고 전체 대표니까 한 명이 100명 대표야. 5명이 오면 500명이 온 거고, 10명이 오면 1000명이 온 거야.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들이 정확하게 전해준다는 말이야. 지도자가 게으르면 때 놓친다. 대게 게으른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친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해. 수요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해줬어요.

수요일 말씀 준비하고 예비해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겪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친다. 오늘 안 가르쳤구나. 혼났구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안 하면 나는 죽어요.

다음에 절대 지도자들은 때 놓치지 말고 따르는 자들 가르쳐야 합니다. 지도자가 대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혜택을 못 보느니라. 지도자가 못 가르치면 10명 만큼 손해가 가고, 100명 만큼 손해가 간다. 지도자들이 모르면 자격이 없는 자다. 지식 신앙, 죽은 자이다. 지식이 안 들어가면 죽은 지식, 죽은 자다. 기성인들 우리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모른다고 하면 더 바보들이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도 그렇다고 했지만 너희도 그러하다. 그때도 많이 혼난 거예요.

따르는 자는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중고등부, 대학부들 몇 명씩 와도 가르쳐야 합니다. 알면 신이 됩니다. 대표가 와서 배우고 가서 가

르쳐줄 것이 아닙니까. 대표가 하면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이니 만큼 절대 하라고 했어요. 게으르면 때 놓친다. 기회를 못 잡는다. 기회 못 잡으면 실패다. 패자인생이다. 자기 기회 때 꼭 해야 한다. 때 지나면 평생 못 한다.

때 놓치면 저 영혼도 밤이 온다.

제때 되면 하나가 나타나서 애구나 하고 알아요.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먹장구름 속에 형상을 그린 흰 구름이 안 보이듯 안 보여요. 요즘에 여러분들 하는 거 봤죠? 때를 지켜라. 때를 지켜라. 하면서 뭐 하죠? 내가 매일 구름 작품 하나씩 찍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못 찍었어. 그 구름 작품 찍는데 2초, 3초. 순간 찍어야 해. 그와 같이 기회가 지나간다.

찍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곡차곡 엄청나게 찍어놨어요. 그 때마다 별의별 것을 다 보여줬어요. 축구는 예술이다. 예술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하나의 구름은 먹장구름 왔다갔다 하는 거 보지만 하고 그린 것을 봐라.

기회 못 잡으면 놓치고 실패한 지도자가 된다. 때 지나면 평생 못 한다.

내가 못 가르친 거 가르쳐줬어요. 내가 가르쳐주고 중고등부도 가르쳐주고, 대학부도 가르쳐줬어요. 이것을 중고등부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인지도가 약하다. 학교 공부는 목숨 공부를 하면서 영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귀하게 못 보더라고. 귀하게 봐야

해요. 성공하려면. 나에게 성공 비법을 물으면 네 정신 사상에 달려 있어. 네 정신 상태, 생각 상태에 좌우된다. 그들이 작은 모임을 몇 명씩 갖도록 할 때 이런 모임은 앞으로 없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보는 것이 99%이고 1%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없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마라. 43년 동안 인생 경험을 해봤는데 한 번 지나간 것은 없어요. 이미 과거는 죽은 것이다. 한 번 지나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한 것은 표가 남아 있어도 안 행한 것은 표가 안 남아있어요. 행한 것은 그것이 성장이 돼서 열매가 돼서 와요. 행치 않은 것은 그냥 아무 것도 없어. 풀만 꺾어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이러하다.

모든 기계 부품 보면서 혼자 못한다. 부품이 혼자 하나? 네가 엔진인데 부속품 3천 가지를 다 끼워야 차가 움직이듯이 그러하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배운 거예요. 옷 갖고 모든 하늘나라 옷을 가르쳤어요. 이와 같이 등급수가 있다. 하늘나라 옷 동대문, 서대문, 이태원 하루 150곳씩 다니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낳기도 전에 배웠어요. 지금부터 나는 50년 전에 배웠는데 50년 전에 낳았어요? 철저하게 지금 배우듯이. 배운 것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대문, 서대문 쓸면서 다녔어요. 저 수서에서 중곡동까지 다 다니면서 배웠어요. 서울 살면서 잘 모를 거예요. 수서가 끝나고 중곡동이 끝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즘에 생긴 마을이면 모를까 다 알아요. 구석구석 다 알아요. 구석구석 배우고 다 안다니까. 철저하게 배우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거지. 이 머리에다 찍어놓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말씀하는 것도 다시 안 와요. 매일 기회가 온

다. 매일 기회가 크고 작게 오는데 기회를 거의 놓친다. 매일 기회가 와요. 기회하고 계속 다녀야 찾고 다닌다고. 매일 기회를 놓치고 매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놓쳤다. 너희도 그러하다. 때를 놓치고 있다. 때가 매일 온다. 섭리 역사는 시작 돼서 매일 때가 오고 매일 기회가 오고 매일 연속되고 있다. 기다리는 때는 섭리 역사를 안 만난 때다. 자꾸 그 기회가 매일 온다. 지금은 무슨 때냐? 무슨 때죠? 지금은 설교 듣는 때죠. 지금은 말씀 듣는 때입니다. 지금이 중하다고 했죠. 매일매일 지금이 중하다고 생각해보라고. 멍청하게 서있냐고. 그 사람의 때가 됐는데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요, 주를 만날 때입니다. 지능에 따라 기회를 잡습니다. 지능이 약하면 그 수준 밖에 못 잡아요. 여러분들 큰 사람이 큰 거 못 잡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때가 말씀을 듣는 때이지만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와서 3년 동안 계속 부활 시켜 왔어요. 부활 시켜놓고 바로 3년 동안 했으면 다 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살아난 사람은 시체. 살아난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된 자들이 계속 행하는 때예요. 살아났을 때는 2018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머슴들, 종들. 말만 신부지. 신부가 왜 신랑이 갖고 온 것을 몰라. 알아야지.

살아난 자는 알아요. 죽은 자는 몰아요. 3년 6개월 동안 살려왔으니까 행해야 해요. 때를 모르면 파수꾼이에요. 때를 몰라. 가장 큰 것은 유대인들이 때를 몰랐죠. 왜 때를 몰랐냐고 했죠.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 왔어도 때를 몰랐죠. 하나님 강림할 때, 예수님 쓰고 올 때를 몰랐죠. 신약 역사 때가 있죠. 신약역사는 또 때를 몰라. 새로운 역

사 온 것을 몰라. 때를 모르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이 때를 모르면 유대인 같고 기성인 같죠. 입으러 갔냐? 자러 갔냐? 고생하며 기다리던 때를 생각하라. 많은 것을 이뤄야 해요. 만든 것으로 만족하냐.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만든 것으로 만족하냐. 잠이 오냐? 먹는 게 빠져있느냐? 때와 기회를 잡고 하면 10년, 20년, 30년, 1000년, 2000년 한을 다 풀게 돼요. 때를 지키면 한을 푸는 거예요. 선조들은 죽어서 못 풀어. 우리가 풀면 선조들 것까지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때를 누구로 보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성자. 그리고 땅에 보낸 자, 주가 때다. 예수님 따라 갔으면 됐잖아. 때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바로 기회요, 주가 행하시는 때가 기회요, 때 놓치면 이를 갈며 후회합니다. 성공 못한 자는 후회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는 요즘 내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데 나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기다리냐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려. 자, 그러면 따져보자. 말을 잘하면 이겨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에서 이기고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했죠. 죽었다 오리라 했거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다시 왔잖아. 와서 사망을 이기고 와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데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냐. 어서 오기를 기다리냐. 참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뭔가를 그릇되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사망권에

서 십자가 저주고 나와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해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 예수님 주관이 아니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근본된 핵이지. 그래서 자기들 모시고 살면서 매일 오기를 기다려. 믿으면 다시 온 것이 되겠죠. 요즘엔 대통령 뽑으려고 유세하고 있죠. 옛날 대통령들 아주 그런 사람들 모시고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기를 원해.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산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모세 오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다시 오기를 원하죠. 그건 그들 생각이지. 기독교는 살아서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나 그것은 자기 주관이야. 그건 내 주관이 아니다. 언제 육신이 내가 온다고 그랬어. 그건 전혀 아니예요.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리는 사람은 자기 고집에 죽는 거예요. 누구는 그만큼 사고가 없어. 왜 수도생활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으면 벌써 뒤집어졌죠.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있잖아. 거기서 부활되어 온 사람들이예요.

대표만 오면 끝난 거예요. 대표만 오면 다 온 걸로 끝났다고 했어요. 대표로 온 자들이 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쓰고, 모세 쓰고 왔잖아. 예수님 쓰고 왔잖아. 또 시대 나 쓰고 나타나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대표로 온 자들이 인정했어요. 나는 받아요. 나는 대화하면 받아요. 바로 대답해줘요. 늘 하던 일이거든. 10대 때부터 하던 일이거든. 사람 대화하듯이 합니다. 대답하기도 싫어. 당연한 일이라. 고개 끄덕 거릴 필요가 없어. 어떨 때는 나도 배워서 내가 대답해야 하나. 눈치가 이렇게 없어. 그렇게 재치가 없어? 다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남은 물결, 남은 물 안 따라간다고 거기 있다면 썩는 물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휘젓고 꼬리 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교회들 지도자들 보면 대화가 안 돼. 대화거리가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2천 년 동안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고. 그때 때가 되면 바로 심판해요. 법관들 있잖아. 20대, 10대 때 죄 지은 것을 80대 때 심판해요? 하나님은 매일 칼을 가신다. 매일 심판하신다. 칼이 말씀이야. 말씀의 심판, 매일 실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실제라고.

금주는 때 놓치면 안 된다.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십니까.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실컷해야지. 옛날에 그렇게도 기다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이제 오는 것도 있어요. 대둔산에서 기도한 것이 이제 기회가 오는 것이 있어요. 허리끈을 졸라맸을 때 기도하고 너도 저들과 같이 잘해주마. 나는 말씀도 풍부한데 물질이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겹게 밤을 새우며 처령하게 남들은 웃고 누리는데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 너는 다 좋은데 죽는 날까지 보는데 죽는 날이 가까운데 다 좋다. 그런데 없다. 안쓰럽다. 다 다른 말로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면 됐지. 저 이단들 보면 많이 누리는데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조건 세우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악착같이 해야지.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기다리고 눈물겹게 울고짜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를 통해 뜻을 이뤄주려고 하는데 마음을 못 열고 있더라고. 요즘도 그랬어요. 지금은 선생님 보고 싶어도 멀리서 볼 뿐이지 참 기적이네요. 몰라도 너무 몰라.

주를 안다고 해도 주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살아보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말 조심 많이 해야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세종대왕에게 살 빠졌다고 해봐라.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친구 같이 여기냐. 나이가 40, 50씩 먹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시간이 하루 종일 없으니까 녹음해서 하루 종일 들어줄 거예요. 내가 8시간 교육 했어요. 그만 하세요. 안 돼. 8시간은 가르치라고 했어.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한다고 해도 또 해야 해. 하나님께도 항상 그렇게 대해야 해요. 그러니 잘하라. 이와 같이 해서 오늘 말씀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 사고를 잘해야 해. 사고가 잘못 됐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도 헛일이야. 사고가 잘못됐는데 어떡해. 사고를 잘 해야해. 생각을 바로 잘해야 해. 생각 잘못하면 큰일난다. 생각을 잘못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오히려 손해예요. 행한대로 갚아주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뛰지 알죠? 금년 800리 뛰었어요. 맨날 브이로그에 했는데도 참고를 안 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냐. 내가 네 밑에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800리 뛰어서 체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영계로 들어가봐. 옛날 사람들, 이방 사람들 얼굴도 다 봤어. 그만큼 영계에 꺼먹눈이야. 못 보는 게 뜻이냐, 보는 게 뜻이냐. 모세도 광채가 나는데 빛이 안 나? 축구선수도 800리 뛰면 힘들어해요. 나는 그런 프로 선수도 하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예요. 78년도부터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약 3200

리 뛰었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들어. 주도 그렇게 뛰는데 다른 사람도 뛰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은 물질만능주의가 아니야. 명예만능주의도 아니야. 건강만능주의야. 있으면 뭐하냐. 벌어놓고 딴 사람만 쓰는데. 건강만능주의가 시대를 잡고 나간다. 하루에 25건까지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총명한 생각, 정신 하니까 건강치 않으면 정신이 흐려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건강해야 해. 신부들이 건강해야 해. 병든 신부, 게으른 신부, 약한 신부는 약해서 안 돼. 약하면 안 돼. 건강해야 해. 건강미가 줄줄 흘러야 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해. 어떤 사람이 간이 이상이 생겼어.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혼했을 때도 그런 것은 싫어합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뚱뚱하면 안 돼. 잘못된 생각한 사람은 딱 한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시대를 잡고 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는 계속 역사로 나갈 거예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하는게 계속 나갈 거예요. 조은 목사가 최고 연구해서 전한다고 일찍 달라고 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보내주려고. 가르친 사람은 못 따라가. 역사, 우리는 섭리역사잖아. 우리 이름이 섭리역사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 살아나서 부활돼서 가는 자들이예요. 부활 돼서 가니 무언가 확확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꼭 그러해야 해요. 표가 확확 나게 해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살았던 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예전처럼 날라다니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봐. 막 좋아하지 말고 지구 생기고 내가 불을 제일 많이 넣은 걸로 나왔더라. 그 사람 운동을 보는 거야. 나는 120만 회 이상을 연습한 사람

이야. 초능력적인 자야. 신기한 것은 성령과 항상 짝다. 항상 시키는 대로 하니 된다. 중학생들 여자들도 내가 시킨대로 하면 10골, 15골씩 넣는다. 시킨대로 하는 것이 최고 천재니라. 권세, 능력을 포함시켜 전도하는 것이다. 모든 섭리의 일도 시킨 대로 하라. 그렇게 해야 해. 신구약 성경 다 풀고 하려면 끝이 없어. 이때 것을 확실하게 해. 이때 지금 이뤄가는 것을 증거하는 게 커요. 지금 받은 말씀 보고 지금 받은 말씀이 그렇게 커요. 지금이 중하다. 제때 하면 성공한다. 말씀도 이때 받은 거 하면 성공한다. 섭리사는 제때 해서 성공한 거예요. 나무, 돌, 이곳 다 제때 해서 얻은 거예요. 제때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실패합니다. 제때 하는 사람은 성공할 거예요. 주일 말씀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가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섭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해. 말씀 왔을 때 제대로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